

# 2019 국별 진출전략

## 파나마



# CONTENTS

## 2019 파나마 진출전략

###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 3

- 1. 개요 ..... 3
  - 가. 시장 전망 ..... 3
  - 나. 주요 경제지표 ..... 4
-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4
  - 가. 한-중미 FTA 발효로 인한 한-파나마 교역 확대 ..... 4
  - 나. 콜론자유무역지대 회복에 따른 파나마 경기 진작효과 상승 ..... 4
  - 다. 파나마-중국 FTA 추진에 따른 교역환경 변화 ..... 5
  - 라. 2019년 신정부 출범 이후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 전망 ..... 6

###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 8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8
- 2. 시장분석 ..... 11
  -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11
  - 나. 수출 ..... 12
  - 다. 투자진출 ..... 14
  - 라. 프로젝트 ..... 16
-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 18
  - 가. 교역 ..... 18
  - 나. 투자 ..... 19
  -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20

### III. 진출전략 ..... 21

-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21
-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22
- 3. 한-파나마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28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 32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 34

첨부 3.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 35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 36

#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 1. 개요

### 가. 시장전망

#### □ 2018년 하반기 성장 둔화세 극복, 역내 안정적 경제성장률 유지 전망

- 2018년 하반기에 건설경기 둔화, 국제무역 감소에 따른 주재국 운송업 타격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신규 인프라 확장, 광물자원 수출 확대 등으로 2019년에도 중미 내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파나마 동광산 개발 완료에 따른 구리 수출 개시, 신규 인프라 확장에 따른 건설경기 호조, 파나마 운하 및 금융업·관광업 등 서비스 부문 강화가 주재국 경제성장을 견인할 예정

#### □ 국제 무역분쟁 및 높은 대미 의존도로 인한 대외 하방리스크 존재

- 국제 무역분쟁으로 인한 파나마 운하 이용률 감소, 통화정책의 높은 대미 의존도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주재국 경기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나. 주요 경제지표

| 주요지표           | 단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인구             | 백만 명     | 3.85    | 3.91    | 3.98    | 4.04    | 4.1     | 4.16   | 4.22   |
| 명목GDP          | 십억 달러    | 44.8    | 49.1    | 52.1    | 55.1    | 58.9    | 66.7   | 72.3   |
| 1인당 명목GDP(PPP) | 달러       | 12,130  | 13,090  | 13,660  | 14,320  | 15,090  | 16,040 | 17,150 |
| 실질성장률          | %        | 6.6     | 6.0     | 5.8     | 5.0     | 5.4     | 5.6    | 5.8    |
| 실업률            | %        | 4.1     | 4.8     | 5.1     | 5.5     | 6.0     | 5.9    | 5.84   |
| 소비자물가상승률       | %        | 4.0     | 2.6     | 0.1     | 0.7     | 0.9     | 2.2    | 2.5    |
| 재정수지(GDP대비)    | %        | -2.3    | -3.3    | -2.3    | -2.2    | -1.7    | -1.3   | -1.17  |
| 총수출            | 백만 달러    | 827     | 811     | 696     | 636     | 660     | 370    | -      |
| (對韓 수출)        | "        | 142     | 90      | 46      | 30      | 21      | 18     | -      |
| 총수입            | "        | 12,785  | 13,593  | 12,136  | 11,696  | 12,720  | 6,475  | -      |
| (對韓 수입)        | "        | 540     | 464     | 438     | 346     | 405     | 139    | -      |
| 무역수지           | 백만 달러    | -11,958 | -12,782 | -11,440 | -11,060 | -12,060 | -6,105 | -      |
| 경상수지           | 억 달러     | -4,401  | -6,730  | -4,274  | -3,160  | -3,788  | -4,012 | -3,104 |
| 환율(연평균)        | 현지국/US\$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외국인직접투자        | 억 달러     | 46.5    | 44.5    | 44.9    | 52.0    | 53.2    | -      | -      |

주: 2018년은 추정치, 2019년은 전망치

자료원: IMF, Global Trade Atlas, World Bank, 파나마 감사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019년 한-중미 FTA 발효에 따라 한국의 對파나마 수출 확대 전망
- 콜론자유무역지대 경기회복에 따른 재수출 물동량 확대
- 파나마-중국 FTA 추진 및 경험 가속화에 따른 교역환경 변화
- 2019년 대선에 따라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동시다발적 추진 재개 전망

### 가. 한-중미 FTA 발효로 인한 한-파나마 교역 확대

#### □ 한-중미 FTA 발효에 따라 국내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 증가 전망

- 2018년 2월 21일 정식 서명된 한-중미 FTA가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 예정임에 따라 양측의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통한 교역 확대 기대
  - 중미 5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 한국은 중국, 일본, 대만 등 경쟁국 대비 중미 시장 선점효과 예상
    - \* 중미 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 수출 유망품목의 관세혜택을 비롯한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해 양측의 FTA 수혜효과 극대화

[ 한-중미 FTA 대표 유망품목 ]

| 유망품목  | FTA 체결을 통한 기대효과                                                                                                                                                                                                         |
|-------|-------------------------------------------------------------------------------------------------------------------------------------------------------------------------------------------------------------------------|
| 자동차부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미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효과 기대</li> <li>■ 중산층 증가 및 대중교통 미비로 인한 자동차 판매의 꾸준한 증가가 자동차부품 시장 호조세 견인</li> <li>■ 중고차 중심의 자동차 시장 급성장에 따른 부품 수요 확대</li> <li>■ 한국산 부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li> </ul> |
| 화장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류층을 중심으로 미용시장 급성장 중</li> <li>■ 소득증가에 따른 중산층 여성 소비자의 미용에 대한 관심 증대로 수요 확대</li> <li>■ 한류 확산 및 K-뷰티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산 화장품 수요 증가</li> </ul>                                           |
| 음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미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효과 기대</li> <li>■ 중산층 확대에 따른 식음료(특히 건강음료) 수요 증가 전망</li> </ul>                                                                                                |
| 의약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의료부문 의약품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매 증가 예상</li> </ul>                                                                                                               |

### 나. 콜론자유무역지대 회복에 따른 파나마 경기 진작효과 상승

#### □ 콜론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중남미 인근국 항발 재수출 물동량 확대

- 세계 경제위기 및 중남미 경제 둔화로 인해 지난 약 4년간 콜론자유무역지대의 교역량이 감소하였으나, 교역국 다변화에 따라 경기회복 예상

- 2013년부터 주요 재수출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와 특정 품목 대상 고관세 부과 등 콜롬비아와의 무역분쟁에 따라 콜론자유무역지대 교역은 감소세로 전환
- 아직까지 지대 내 역동성은 부진한 상황이나, 주요 대상국과의 교역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 중으로 2017년부터 재수출이 점진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음

[ 콜론자유무역지대 교역추이 ]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수 입   | 14,650 | 12,686 | 11,060 | 10,373 | 9,238  | 9,215  |
| 재 수 출 | 16,142 | 14,736 | 12,962 | 11,365 | 10,418 | 10,433 |
| 무역수지  | 1,492  | 2,050  | 1,902  | 992    | 1,180  | 1,218  |

자료원: 콜론자유무역청(CFZ)

- 콜론자유무역지대 재개발 사업 등 정부 주도 지대 발전계획 수립에 따라 성장동력 확충 전망
  - 콜론자유무역지대는 2017년 기준 파나마 GDP의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콜론자유무역지대의 물동량 증가는 파나마 내 물류 및 운송업 활성화를 선도(파나마 재정경제부)
    - \* 2017년 기준 콜론 지역의 항만(MIT, Evergreen, Panama port 종합)은 중남미 내 물동량 순위 1위를 기록 (2016년 1위를 기록한 브라질 산토스(Santos)항을 제치고 1위 기록,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CEPAL))
  - 이 외에 콜론시 재개발 사업, 신규 공항 및 항만 설치 등 자유무역지대 확장계획에 따라 역내 건설 경기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 예상
  - 콜론자유무역지대 활성화는 입주 기업의 증가, 기업 대상 금융업 확대, 역내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고리를 창출함

## 다. 파나마-중국 FTA 추진에 따른 교역환경 변화

### □ 파나마-중국 수교로 중국기업들의 對파나마 투자 확대

- 파나마-중국 간 공식 수교 선언(2017. 6) 및 중국정부의 파나마 대사관 개설(2017. 9)을 계기로 중국 기업들의 對파나마 교역 및 투자 확대 전망
  - 수교에 이어 2018년 1월 양국 간 FTA 체결을 위한 타당성 연구에 돌입한 이후 6개월 만인 7월 중 1차 협상, 8월 중 2차 협상까지 완료한 상황임
  - 2017년 11월 파나마 바렐라(Varela)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외교·통상·관광 등 다방면에서 MOU를 체결하고 중국의 파나마 내 철도 건설 프로젝트 참여, 양국 간 직항노선 개설을 통한 관광 촉진, 파나마에 대한 최혜국 지위 부여에 합의함
    - \* 2016~2017년 중국은 파나마 운하 이용물량에서 미국에 이어 전체 2위, 콜론자유무역지대 수입량 기준으로는 1위를 차지함

## □ 소비재 수출 및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으로 중국과의 경쟁 격화 예상

- 중국기업들은 콜론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중남미 재수출 확대 추진 전망
  - 중국기업과 경쟁 격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가전제품, 휴대폰 등의 소비재 분야, 가격경쟁이 치열한 타이어, 철강제품 분야 등임
  - \* 2017년 기준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중국 수입은 31.1억 달러로 수입국 1위 기록
- 중국기업,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파나마 투자 확대 전망
  -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해사·물류·교통 분야 호혜적 관계 협정을 맺음으로써 관련 프로젝트들이 급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 중국기업들의 관심분야는 컨테이너항만, 물류파크, 전력, 부동산 개발, 전자제품 조립, 물류(보세창고 및 쿼서비스) 등 다수가 파나마 정부 주력 추진분야에 해당
  - \* 중국 화웨이는 콜론자유무역지대 내 부품 조립을 통해 약 700개의 일자리를 창출
  - 주요 파나마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대상 중국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는 등 중국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 \* 중국기업과 경쟁 격화 예상 분야 : 지하철, 교량, 전력, 병원 등 인프라 프로젝트 분야

## 라. 2019년 신정부 출범 이후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 전망

### □ 2019년 중반 파나마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인프라 투자 적극 추진

- 건설업은 파나마 GDP의 약 18% 및 국가 내 총고용의 10.5%를 차지하고 있어 파나마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임
  - 2018년 4월경 발생한 파나마 내 건설노조(SUNTRACS) 파업은 파나마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쳐, 2018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4분기 4.2%에서 소폭 하락한 3.7%로 마감함
- 물류 인프라 중심 투자 확대와 낙후된 공공 인프라 개선 동시 추진
  - 파나마 정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에 중점적으로 투자함과 동시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낙후 공공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고 있음
  -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인 지하철 2·3호선, 제4교량, 제4송전선, 아동병원 건설, 컨테이너항만 건설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이외 동시다발적인 민자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2019년 5월 대선 추진에 따라 현재 발주 중인 다수의 국책급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되고 있으나 대선 이후 기존 프로젝트 재개 및 신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는 유지될 전망
  - 이에 따른 건설중장비, 건축자재, 전력기자재 등의 수요는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파나마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

| 프로젝트명            | 발주처       | 금액        | 공사기간(잠정)  | 비고     |
|------------------|-----------|-----------|-----------|--------|
| 지하철 2호선          | 지하철공사     | 약 21억 달러  | 2015~2019 | 공사 추진중 |
| 제3교량             | 운하청       | 약 5.7억 달러 | 2014~2017 | 공사 추진중 |
| 콜론 LNG 발전소 및 터미널 | 송전공사      | 약 12억 달러  | 2016~2019 | 공사 추진중 |
| 제3송전선            | 송전공사      | 약 3.5억 달러 | 2013~2017 | 공사 추진중 |
| 콜론재개발사업          | 주택토지부     | 약 5.7억 달러 | 2015~2019 | 공사 추진중 |
| 토쿠멘국제공항 2터미널     | 토쿠멘국제공항공사 | 약 8.8억 달러 | 2013~2018 | 공사 추진중 |
| 지하철 3호선          | 지하철공사     | 약 21억 달러  | 2018~2022 | 입찰 추진중 |
| 제4교량             | 공공사업부     | 약 14억 달러  | 2018~2020 | 입찰 추진중 |
| 제4송전선            | 송전공사      | 약 4.5억 달러 | 2018~2020 | 입찰 추진중 |



##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국가 주도 공공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기조 유지
- 미국 경제 회복세에 따른 운하 및 콜론자유무역지대의 물동량 증가 예상

#### 가. 정치 환경

##### □ 현 바렐라 정권, 2019년 대선 관련 집권력 약화 전망

- 현 파나메니스파당(Partido Panamenista, PAN)의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 대통령은 2014년 5월 4일 파나마 대통령 선거에서 39%의 득표율로 당선, 7월 1일부로 출범함
  - 공공 교통시스템 확충 등 각종 인프라 확대사업에 주력하고 기본식품가격 동결 등 서민물가 안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
  - 이와 더불어 전 마르띠넬리(Martinelli) 정권에서 시행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 실시, 대통령 및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을 강조함
  - 재임기간 내 지지율은 당선 이후 연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 9월 기준 취임 이래 최저 수준(37%)을 기록함
    - \* 평가항목 중 정부 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84%를 차지하였으며, 실제로는 전 정권의 부정부패 심판에 치중하고 국정운영 속도가 더딘 측면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

##### □ 2019년 5월 대선에 따른 신정부 출범 예정

- 2019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파나메니스파당(PAN)과 제1야당 민주혁명당(PRD), 제2야당 민주변화당(CD) 간 경합 예상
  - 2018년 9월 16일 제1야당 민주혁명당(PRD) 내 압도적 표차로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라우렌티노 코르피소(Laurentino Corizo) 전 국회의장 겸 농축산개발장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확대정책과 더불어 물가안정, 개방정책 등 대세 기조는 유지될 전망

## 나. 경제 환경

### □ 2019년 파나마 경제성장률 5%대 유지 전망

- 2018년 파나마 경제성장률은 건설경기 호조세 유지, 파나마 운하 및 콜론자유무역지대로 대표되는 물류인프라 서비스 확대, 신규 광물자원 수출 기회 등에 힘입어 5%대의 견조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파나마 경제성장률 추이 ]

|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경제성장률(%) | 6.6  | 6.0  | 5.8  | 5.0  | 5.4  | 5.6     | 5.8     |

자료원: IMF, 파나마 통계청(\*)는 전망치)

### □ 2019년 파나마 교역, 청신호 예상

- 파나마의 수입은 인프라 투자 확대, 중산층 확대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 유지 전망
- 파나마의 수출은 주요 수출품목인 농산물 대상 수출인증제도 등 정부 주도 수출진흥정책에 따라 수출여건 개선
  - 파나마 코브레 동광산이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부터 연평균 32만 톤의 구리를 생산할 예정임에 따라 광업 부문 수출도 2018년 말부터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 생산규모는 34년간 연평균 32만 톤 구리 생산 및 연간 매출액 약 18억 달러 예상
- 콜론자유무역지대 또한 최대 수입처 중국과의 교역 확대, 주요 재수출 대상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와의 관계 회복 등에 따른 교역 활성화 예상

[ 파나마 전체 교역추이 ]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총수입(파나마+콜론)   | 27,034  | 25,472 | 24,653  | 22,509  | 20,934 | 21,938  |
| -파나마수입        | 12,384  | 12,786 | 13,593  | 12,136  | 11,696 | 12,723  |
| -콜론수입         | 14,650  | 12,686 | 11,060  | 10,373  | 9,238  | 9,215   |
| 총수출(파나마+콜론)   | 16,948  | 15,564 | 13,774  | 12,061  | 11,054 | 11,093  |
| -파나마수출        | 806     | 828    | 811     | 696     | 636    | 660     |
| -콜론재수출        | 16,142  | 14,736 | 12,963  | 11,365  | 10,418 | 10,433  |
| 총무역수지(파나마+콜론) | -10,086 | -9,908 | -10,879 | -10,448 | -9,880 | -10,845 |

자료원: 파나마 통계청, 콜론자유무역청(CFZ)

## 다. 산업 환경

### □ 산업구조 일반

- 파나마의 산업별 비중은 1차 산업(농축산, 광업) 약 5%, 2차 산업(제조, 건설) 약 21%, 3차 산업(서비스업) 약 74%로 서비스산업 중심 구조 형성
  - 1차 산업은 농업(곡물, 열대과일, 커피, 사탕수수), 어업(갑각류, 생선), 축산(소고기 등), 광업(구리 등)이며, 파나마 구리광산의 추정 매장량은 21억 4천만 톤(세계 15위급 대형 광산)임
  - 2차 산업 중 제조업 비중은 미미하나, 건설업의 경우 파나마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총 GDP의 17.5%를 차지함
  - 3차 산업(서비스업)은 물류·관광·금융업 등으로 대표되는 주요 산업이며 파나마 운하 확장(2016. 6.26)을 계기로 국가경제 기여율이 한층 확대됨

[ 2017년 및 2018년 1/4분기 기준 주요 산업별 총 GDP 내 비중 ]

| 산업별       | 전체 GDP 비중 |             | 산업별       | 전체 GDP 비중 |             |
|-----------|-----------|-------------|-----------|-----------|-------------|
|           | 2017      | 2018년 1/4분기 |           | 2017      | 2018년 1/4분기 |
| 도소매업      | 17.8%     | 17.8%       | 제조업       | 5.2%      | 5.1%        |
| 건설업       | 16.7%     | 17.5%       | 호텔·요식업    | 2.5%      | 2.4%        |
| 운송·저장·통신업 | 13.3%     | 13.4%       | 광업·채석업    | 1.8%      | 1.9%        |
| 부동산임대업    | 13.6%     | 12.8%       | 농업·임업·목축업 | 1.9%      | 1.7%        |
| 금융업       | 7.3%      | 7.3%        | 어업        | 0.4%      | 0.4%        |

자료원: 파나마 통계청, 재정경제부

## 라. 정책·규제 환경

### □ 시장개방정책 및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추진

- 제조업 기반이 미미하고 서비스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구조상 전통적으로 시장개방정책을 유지하며 규제는 타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
  - 파나마 자체 시장은 협소하나 운하와 자유무역지대 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중계무역이 발달하였으며 역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적극적
  - 평균수입관세가 8%대로 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수입관세가 낮고 시장진입장벽이 낮은 반면 경쟁이 치열함
  - 역내 최대 금융 중심지로 외국인투자유치와 더불어 각종 기업활동 관련 규제 개혁에도 적극적이며, 2018년 6월 기준 중남미 내 지역본부 역할을 하는 다국적기업 총 147개사가 진출해 있는 상황

## □ 공공 프로젝트 및 금융 투명성 제고 노력

-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투명성 제고에 따른 한국기업 참여 가능성 확대
  - 현 바렐라 정부의 정책기조와 더불어 파나마 내 만연한 프로젝트 관련 비리 혐의에 따라 프로젝트 추진 시 투명성 제고 필요성 대두
  - 향후 중장기적으로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될 경우 한국 건설기업들의 파나마 공공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기대
- OECD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가입을 통한 금융 투명성 제고 추진
  - 파나마는 EU 지역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 리스트에 포함되어 조세피난처로 분류되었으며, 파나마 내 탈세 스캔들 등으로 국제적인 압력 및 제재에 당면
  - 2017년 12월 OECD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가입 및 EU 조세 비협조지역 리스트 제외를 이루어냈으며, 2018년 하반기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실이행을 앞두고 있음
  - 이와 더불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색국가군 목록 탈피를 통해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리스크 감소를 추진

## 2. 시장 분석

- 중남미 내 양호한 경제성장률이 지속되며, 자유무역 추진에 적극적인 국가
- 높은 시장개방도에 따른 경쟁 심화 구도
- 한-중미 FTA 활용 무역·투자 극대화 추진 필요

###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 역내 항공·해운 및 물류 허브(hub)로 중남미 진출 교두보 역할

- 파나마 운하, 콜론자유무역지대, 토쿠멘국제공항 등을 통하여 북미와 중남미를 잇는 진출거점 역할 수행
- 2016년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국제해상물류 비중 증가 및 환적 항구로서 파나마 주요 항구의 위상 강화
  - \* 전 세계 교역량의 5%, 컨테이너 화물의 3.9%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
- 콜론자유무역지대 물류창고를 통하여 중남미 각국에 재수출하는 구조이며, 중남미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적기납품 및 소량다품종 구매에 유리
  - \* 세계은행 발표 2016년 물류성과지수(LPI) 중남미 1위(세계 40위)

## □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 증가 및 수입수요 확대

-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7.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산층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화장품 등 소비재 구매력 급속 확대
  - \* 2017년 기준 1인당 GDP U\$15,090으로 중미 카리브 국가 내 최고 소득수준 달성
- 정부 주도의 인프라 건설 투자확대로 건설중장비, 건축자재, 전력기자재 수요 지속적으로 확대

## □ 제조업 미발달로 시장개방정책 추진

- 파나마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반면 물류유통, 금융 등 서비스산업 중심국가로 시장개방정책 추진
  - \* 서비스산업은 파나마 총 GDP의 약 74%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
- 평균수입관세가 약 8.25%에 불과하고 시장개방 수준이 높아 신규 시장 진입에 유리한 한편, 경쟁이 치열하여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
  - 농산물 이외의 품목에 중남미 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율 적용
    - \* 대부분 품목에 최고 관세율을 15%로 하는 5단계 종가세 관세율 적용(0, 3, 5, 10, 15%)

## 나. 수출

### □ 파나마 수입동향

- 파나마 내수 수입은 경제성장, 중산층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24%)이며 중국(9.7%), 한국(3.5%) 등 아시아 국가 및 멕시코(4.9%), 콜롬비아(2.5%) 등 인근 중남미 국가 수입비중이 높음
    - \* 중국의 경우 수입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18년 상반기에는 수입비중 10% 돌파
  - 제조기반이 약한 파나마는 수입의존도가 크며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제품, 연료 등 대부분의 공산품 및 소비재를 수입하고 있음

### [ 파나마 교역추이 ]

(단위: 백만 달러, %)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6 |
|------|---------|---------|---------|---------|---------|
| 수 출  | 811     | 696     | 636     | 660     | 370     |
| 수 입  | 13,593  | 12,136  | 11,696  | 12,723  | 6,475   |
| 무역수지 | -12,782 | -11,440 | -11,060 | -12,066 | -6,105  |

자료원: 파나마 통계청

### [ 파나마 주요 수입대상국 ]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6 |
|----|----------|--------|--------|--------|--------|---------|
| 1  | 미국       | 3,401  | 3,137  | 2,990  | 3,084  | 1,557   |
| 2  | 오일자유무역지대 | 2,027  | 1,160  | 1,089  | 1,374  | 836     |
| 3  | 중국       | 1,104  | 1,158  | 1,070  | 1,242  | 662     |
| 4  | 콜론자유무역지대 | 1,232  | 1,060  | 968    | 933    | 426     |
| 5  | 멕시코      | 566    | 621    | 618    | 624    | 309     |
| 6  | 코스타리카    | 491    | 454    | 454    | 466    | 223     |
| 7  | 콜롬비아     | 378    | 361    | 362    | 324    | 158     |
| 8  | 한국       | 459    | 428    | 317    | 449    | 100     |
| 9  | 수출가공지역   | 212    | 263    | 316    | 438    | 225     |
| 10 | 일본       | 273    | 292    | 314    | 280    | 135     |
|    | 전체       | 13,592 | 12,136 | 11,696 | 12,723 | 6,475   |

자료원: 파나마 통계청

### [ 파나마 10대 주요 수입품목 ]

(단위: 백만 달러, %)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
| 광물성연료      | 2,773  | 1,656  | 1,581  | 1,929  |
| 자동차        | 1,181  | 1,276  | 1,317  | 1,051  |
| 기계류        | 1,576  | 1,305  | 1,315  | 1,082  |
| 전기전자제품     | 976    | 976    | 891    | 852    |
| 의료용품       | 342    | 469    | 522    | 495    |
| 플라스틱제품     | 430    | 417    | 420    | 335    |
| 철강제품       | 701    | 539    | 355    | 398    |
| 의류(편물제 제외) | 326    | 324    | 306    | 201    |
| 철강         | 395    | 294    | 241    | 232    |
| 가구 및 조명기구  | 272    | 262    | 234    | 176    |
| 신발류        | 222    | 234    | 227    | 163    |
| 전체         | 13,592 | 12,136 | 11,696 | 12,723 |

자료원: 파나마 통계청(현재 기준 최신)

### □ 주요 경쟁국 및 경쟁품목 동향

- 타이어, 자동차부품, 휴대폰 등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제품의 약진
  - 중국의 경우 2010년부터 미국에 이은 주요 수입대상국(2위)으로 대두하여 2018년 상반기에는 수입비중이 10%를 상회
  - 최근 파나마-중국 간 FTA 추진 등 경제협력 가속화에 따라 중국과 경쟁 격화가 예상되며, 중국계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율 증가에 따라 건설중장비, 전력기자재 등 연관 산업에도 영향 우려

### □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진입장벽

- 높은 대외수입 의존도로 무역개방도가 높은 시장
  - 전통적인 개방경제 및 무역자유화 정책으로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음

- 인근 중남미 국가의 경우 주재국 주요 수출품목인 농산품을 대상으로 단기적인 수입규제조치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으나, 한국 주력 수출품목은 주재국에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과 일치하여 해당사항 없음
- 화장품, 의약품·의료기기 대상 보건부 등록 의무화
  - 파나마 정부는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 국민 건강 및 보건 관련 품목에 대해 보건부 또는 식품위생국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 제품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다른 중남미 국가와 비슷한 편이나 동 의무사항은 관련 품목 수입 시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로 작용

## □ 우리 기업의 수출 성공사례 및 시사점

- 국내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및 중미 진출 확대
  - 포스코건설의 파나마 내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더불어 중소기업 한일엔브이의 가설 오피스(컨테이너) 건설 협력을 통해 윈윈 효과 창출
  - 대기업 포스코건설의 경우 기존에 현지 EPC 추진 경험이 있는 양질의 협력기업(한일엔브이)을 확보하고, 최초 현지 프로젝트 추진 시 애로사항을 경감
  - 중소기업 한일엔브이는 추가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수출성과를 한층 확대하는 효과를 이뤄냄
-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과 연관품목 납품 기회 확대를 동시 추진
  -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추후 추가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대중소 동반진출을 통해 현지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 내 입지 확보
  - 국내 협력업체 연계 진출기반 마련 및 연관제품의 수출 가능성 제고

## 다. 투자진출

### □ 파나마, 중미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가

- 2017년 기준 파나마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금액은 약 53억 달러로 중미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금액의 약 45% 차지(UNCTAD)
  - 주요 외국인직접투자 분야는 물류·항만, 공공교통, 전력 등 인프라 분야, 금융서비스, 부동산 등이며, 이를 통해 신규 고용 창출 도모
  - \* 2017년 기준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로 유치된 147개 기업을 통해 투자규모 10억 달러 이외 6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평가(파나마 통상산업부)
- 파나마의 중남미 물류거점 기능을 바탕으로 해외 우수 다국적기업들이 중미·카리브 지역본부를 유치하고 있음

- 한국기업 또한 파나마 지역본부를 통해 중미 타국을 관할하는 사례 대부분
-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다국적기업 대상 각종 면세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추진 중임

#### [ 파나마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상반기) |
|-----------------|-------|-------|-------|-------|-------|-------|-----------|
|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 2,887 | 3,943 | 4,459 | 4,494 | 5,226 | 5,319 | -         |
|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     | △7.8  | 36.5  | 13.1  | 0.7   | 16.2  | 1.7   | -         |
| 한국의 對파나마 투자금액   | 387.7 | 233.5 | 272.2 | 224.5 | 41.5  | 40.2  | 40.5      |
| 한국의 對파나마 투자 증가율 | 121.9 | △39.7 | 16.5  | △17.5 | △81.5 | △3.1  | 340.2     |

자료원: IMF, 파나마 통계청, 수출입은행

#### □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외국인직접투자 적극 유치 정책으로 다양한 국가 대상 투자 진출 개방
  - 파나마 주요 투자 국가는 미국 외 유럽 국가(영국, 스페인), 인근 중남미 국가(콜롬비아, 멕시코), 아시아 국가(한국, 일본) 등 다양함
  - 중국의 경우 양국 수교 이전까지 주로 홍콩계 기업을 통해 파나마에 투자해 왔으나, 2017년 6월 정식 수교를 계기로 향후 물류, 인프라, 부동산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기업들의 파나마 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
  - 일본의 경우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파나마를 중미·카리브 지역 진출거점으로 활용해 왔으며, 최근 항공기 정비, 공공교통 인프라 사업 참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 현재 파나마 지하철 3호선 건설을 위한 차관 지원(26억 달러 상당)과 함께 전동차 공급 계약(8억 3,900만 달러 상당) 추진 예정

#### □ 투자진출 진입장벽

- 파나마는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적인 국가로 투자진출 시 특별한 진입장벽은 없음
  - 다만 숙련 노동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주재국 노동법상 외국인 고용비율을 제한하고 있어 고급 노동력 확보에 애로사항 발생
  - 외국인 고용은 일반직의 경우 전체의 10%, 기술·전문직의 경우 15% 내에서 허용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현지 노동청으로부터 근로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 우리 기업 진출 성공사례

- 파나마 진출 국내 타이어 기업의 경우 파나마 지사 설립 이후 약 40년간 에콰도르 등 인근 중미국까지 관할하며 파나마를 거점으로 시장범위를 확장
  - 최근 파나마 내 콜론자유무역지대 물류기지를 활용하여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향발 재수출 전략을 추진 중
  - 경제성장이 양호한 중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파나마의 물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북미-중남미 및 태평양-대서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파나마의 이점을 살려 물류 거점으로 활용
  - 바이어와 협력을 통해 한-중미 FTA를 통한 관세 인하를 홍보하고, 중고가 수입품 타이어를 취급하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 활동 등 브랜드 인지도 확산 전략 구사
  - 제품의 납품기한 단축, 인근국가의 소량 오더 흡수 등 주변국 연계 진출을 위한 다양한 파생전략도 모색

## 라. 프로젝트

### □ 파나마 정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의 국제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하철, 교량, 전력, 공항, 도로, 전력 등 물류 인프라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
- 파나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 중 한국기업들의 참여가 유망한 프로젝트는 지하철 3호선, 전력(발전·송전), 아동병원, LNG 발전소·터미널 등임

[ 한국기업 파나마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현황 ]

| 프로젝트                          | 내용                                                                                                                                                                                                                    |
|-------------------------------|-----------------------------------------------------------------------------------------------------------------------------------------------------------------------------------------------------------------------|
| Miraflores 디젤발전소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처 : 파나마 운하청(ACP)</li> <li>•수주기업 : 현대중공업</li> <li>•발전소 위치 : Miraflores 인근(파나마시티)</li> <li>•규모 : 70MW(1.4억 달러)</li> <li>•참고사항 : 2013년 완공</li> </ul>                           |
| 운하 확장공사 수문 및 구동장치 설비 공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처 : GUPC(Grupo Unidos por El Canal)</li> <li>•수주기업 : 현대삼호중공업</li> <li>•규모 : 1.9억 달러</li> <li>•참고사항 : 2016년 4월 완공</li> </ul>                                                 |
| 파코(Panama-Cobre PACO) 석탄화력발전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처 : MPSA(Minera Panama S.A)</li> <li>•수주기업 : SK건설</li> <li>•발전소 위치 : Punta Rincon(콜론주)</li> <li>•규모 : 300MW(약 6억 달러)</li> <li>•참고사항 : 2017년 완공 예정(파코 구리광산에 전량공급)</li> </ul> |

| 프로젝트                            | 내용                                                                                                                                                                                                                                                               |
|---------------------------------|------------------------------------------------------------------------------------------------------------------------------------------------------------------------------------------------------------------------------------------------------------------|
| 싼타리타(Santa Rita)<br>디젤발전소 건설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처 : Jinro.Co. Ltd (Etesa로부터 수주, 원청기업)</li> <li>• 수주기업 : 한일엔브이</li> <li>• 발전소 위치 : Santa Rita(콜론주)</li> <li>• 규모 : 58MW(약 5천만 달러)</li> <li>• 컨소시엄 : 한일엔브이와 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 구성</li> <li>• 공사기간 : 2015. 6~2016. 2</li> </ul> |
| AES 천연가스 발전소 및 LNG터미널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처 : AES(Etesa로부터 수주, 원청기업)</li> <li>• 수주기업 : 포스코건설</li> <li>• 발전소 위치 : 콜론시</li> <li>• 규모 : 381MW(약 6.5억 달러)</li> <li>• 공사기간 : 2016. 4~2018. 8(준공식 2018. 8. 17)</li> </ul>                                             |

자료원: 파나마 재정경제부(MEF), 파나마 공공기관 발주처 포럼

- 이 외에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지하철 3호선, 제4교량, 아동병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전력, 보건 관련 국책급 프로젝트 다수임

#### [ 2018~2019년 파나마 내 주요 추진 프로젝트 현황 ]

| 프로젝트            | 내용                                                                                                                                                                  |
|-----------------|---------------------------------------------------------------------------------------------------------------------------------------------------------------------|
| 메트로 3호선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처 : 파나마 지하철공사</li> <li>• 규모 : 26.7m, 14개역(약 21억 달러)</li> <li>• 공사기간 : 2018~2022년(5년)</li> </ul>                          |
| 제4교량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처 : 파나마 공공사업부(MOP)</li> <li>• 규모 : 3.5km, 8차선(약 14억 달러)</li> <li>• 공사기간 : 약 42개월</li> </ul>                              |
| 파나마 아동병원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처 : 파나마 보건부(MINSA)</li> <li>• 규모 : 병상 수 약 525개(약 4억 달러)</li> <li>• 공사기간 : 2019~2020년</li> </ul>                          |
| 제4송전선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처 : 파나마 송전공사(ETESA)</li> <li>• 규모 : (구간)330km, (송전용량)1,280mva(약 4.5억 달러)</li> <li>• 공사기간 : 2019~2020년</li> </ul>         |
| 파나마-콜롬비아 송전망 연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처 : 파나마-콜롬비아 송전망 연결공사(ICP)</li> <li>• 규모 : (길이)600km, (용량)400mw/300kv(약 4.5억 달러)</li> <li>• 공사기간 : 2017~2019년</li> </ul> |

자료원: 파나마 재정경제부(MEF)

###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외제

#### 가. 교역

##### □ 한국의 對파나마 교역 동향

- 중남미 경제둔화 여파에 따른 對파나마 수출 하락세 전환
  - 파나마 운하 확장 완료와 건설노조 파업에 따른 최근 파나마 건설경기 둔화세, 중남미 경제 저성장 여파로 수출액은 2013년부터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나, 2017년 한국의 對파나마 수출은 증가세로 돌아서 전년 대비 16.8% 성장
  - 2018년 상반기의 수출액은 승용차, 철강제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감소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5.8%의 하락세로 마감

##### □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로 한국 주력 수출품목의 시장점유율 상승

- 한국은 2017년 기준 콜론자유무역지대 등 중계무역지 제외 시 미국, 중국,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파나마의 제5위 수입대상국 기록
  - 한국산 제품이 파나마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3.5%로 전년 대비 0.8%p 상승
    - \*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2017년 시장점유율 2위(31.5%)를 기록하여 관련 A/S 자동차부품 수요도 동반 상승

#### [ 한-파나마 주요 수출품목 ]

(단위: 천 달러, %)

| 연번 | HS코드 | 품목명   | 2017    |          | 2018(1~7월) |        |
|----|------|-------|---------|----------|------------|--------|
|    |      |       | 수출금액    | 수출증감률    | 수출금액       | 수출증감률  |
| 1  | 8703 | 자동차   | 90,574  | △46.5    | 28,341     | △47.9  |
| 2  | 4011 | 타이어   | 28,814  | 85.1     | 22,016     | △130.6 |
| 3  | 8402 | 보일러   | 22,815  | 29,309.1 | 43         | △99.8  |
| 4  | 8481 | 밸브    | 19,798  | 3,918.2  | 4,847      | 25.0   |
| 5  | 7308 | 철강구조물 | 17,609  | 7,227.9  | 714        | △95.6  |
| 6  | 8544 | 케이블   | 12,824  | 2,061.7  | 753        | △87.9  |
| 7  | 8415 | 공기조절기 | 12,514  | 15.5     | 4,988      | △32.6  |
| 8  | 8708 | 자동차부품 | 11,067  | 10.0     | 6,715      | △6.9   |
| 9  | 8507 | 축전지   | 9,700   | 56.1     | 4,747      | △22.5  |
| 10 | 8429 | 불도저   | 9,245   | 146.4    | 6,346      | 22.4   |
| 전체 | -    | 총계    | 405,201 | 16.8     | 79,510     | △215.2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편의국적선(선박) 제외 통계

## □ 한-중미 FTA 추진

- 한-중미 FTA 발효로 한국 수출 유망품목의 교역조건 개선과 함께 서비스·정부조달 시장의 대폭 개방을 통하여 경쟁국 대비 우위 선점 가능
  - 중미 체결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내지 단계적 관세철폐 추진 예정
  -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 이외에 화장품, 자동차부품, 음료 등의 중소기업 품목도 대폭 개방
  - 유통·건설·콘텐츠 등의 서비스시장과 에너지·인프라·건설 등의 정부조달시장을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여 기존 미국 및 브라질·스페인 계열에 장악된 시장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파나마의 민자사업(Build-Operate-Transfer, BOT) 개방으로 중미 지역 대규모 건설사업 참여 가능

## 나. 투자

### □ 우리 기업 투자진출 동향

- 우리나라의 對파나마 투자금액은 2017년 기준 4,028만 달러로, 주요 투자 분야는 운수·창고업 및 임대서비스업임

[ 2016~2017년 주요 업종별 한국의 對파나마 투자 현황 ]

(단위: 천 달러, %)

| 업종         | 2016년 투자금액 | 2016년 투자비중 | 2017년 투자금액 | 2017년 투자비중 |
|------------|------------|------------|------------|------------|
| 운수 및 창고업   | 2,850      | 6.8        | 36,890     | 91.5       |
| 임대서비스업     | 37,963     | 91.3       | 2,530      | 6.2        |
| 건설업        | 430        | 1.0        | 433        | 1.0        |
| 도매 및 소매업   | 80         | 0.1        | 350        | 0.8        |
| 제조업        | 100        | 0.2        | 0          | 0          |
| 전문 기술 서비스업 | 0          | 0          | 80         | 0.1        |
| 기타         | 139        | 0.3        | 0          | 0          |
| 총계         | 41,562     | 100        | 40,283     | 100        |

자료원: 수출입은행

- 2018년 기준 파나마 진출 한국기업은 17개사이며 지역본부 형태로 운영
  - 파나마를 거점으로 인근 중미·카리브 연안국 및 남미 국가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파나마의 인프라 건설 확대에 따라 국내기업의 건설시장 진출사세가 증가하고 있음
  - \* 파나마 진출 국내기업 : 무역보험공사, KEB하나은행,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삼성물산, 효성, 포스코대우, 포스코건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판토스, FNS인터내셔널, 한라홀딩스, 신스틸, 삼성SDS, 제일기획 등

##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 양국 TPO 협력을 통한 한-중미 FTA 활용성과 제고

- 국내기업의 한-중미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TPO 협력사업 추진
  - 한-중미 FTA 연계 서울푸드 중미관 운영 및 무역상담회 개최 예정
  - 한-중미 FTA 활용 미개척 유망시장(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 진출 상담회 개최
  - FTA 활용 증진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진행으로 정보 제공 기능 확대

### □ 파나마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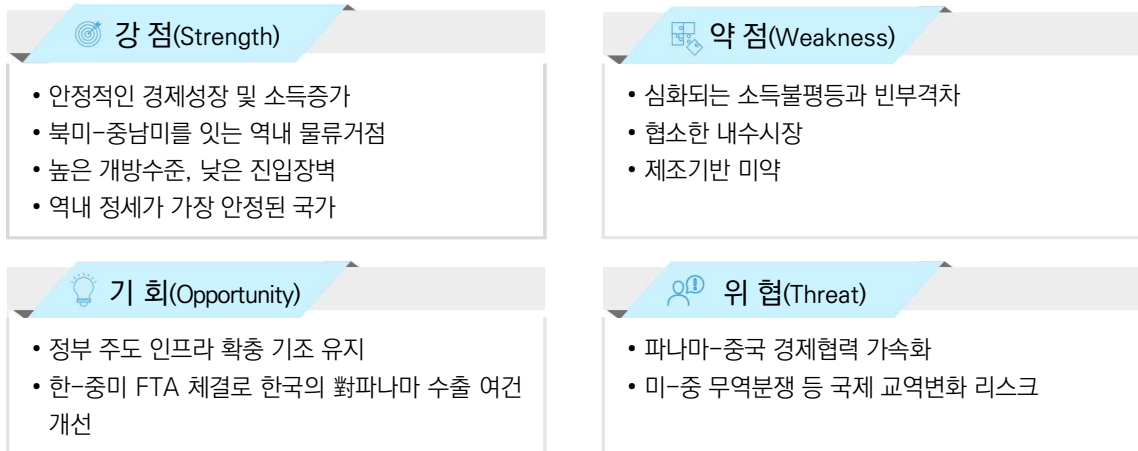
- 파나마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공동협력 기반 구축
  - 주재국 전략분야(SOC, 물류, 전력, 보건의료 등) 대상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및 대중소 동반 진출을 통한 중소 협력업체 발굴 지원
  - 유력 발주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발굴 기회 선점
  - 민관 합동 사절단 구성을 통한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 추진

### Ⅲ 진출전략

- 한-중미 FTA 체결을 바탕으로 수출 유망품목 대상 마케팅 강화
- 파나마 물류 거점기능 활용 중남미 인근 시장 연계진출 추진
-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및 관련 품목 수출경쟁력 확대
- 중국 경험 가속화 대비 국내기업 차별화 전략 수립

##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 파나마 지역 SWOT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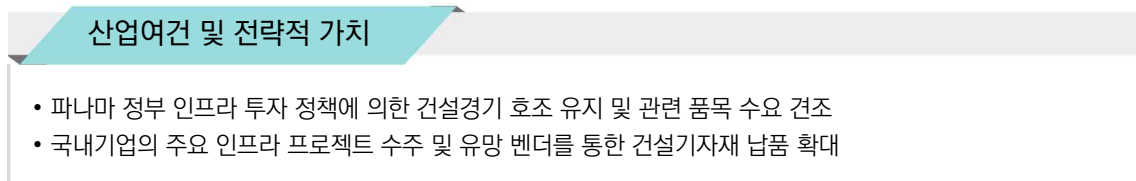


| 전략방향             | 세부전략                                       | 진출전략                     |
|------------------|--------------------------------------------|--------------------------|
| SO 전략<br>(역량 확대) | • 한-중미 FTA 활용 마케팅 추진                       |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수출 역량 강화     |
| ST 전략<br>(강점 활용) | • 파나마 TPO 협력 국가 간 경험 플랫폼 마련                | 콜론자유무역지대활용 스톡세일 확대       |
| WO 전략<br>(기회 포착) | • 파나마 물류 인프라 활용사업 확대                       | 프로젝트 직접 수주 및 건설기자재 수출 확대 |
|                  | • 파나마를 통한 중남미 인근 시장 진출 강화                  |                          |
|                  | • 유력 발주처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프로젝트 수주 지원     |                          |
|                  | • 유망 벤더 활용 기 수주된 프로젝트 대상 국내기업 기자재 납품 기회 확대 |                          |
| WT 전략<br>(위협 대응) | • 중국제품과 차별화된 고품질제품 중심 마케팅 활동 추진            | 중국 저가제품 대비 차별화 전략 수립     |

##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가. 건설기자재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 확대정책으로 건설기자재 수요 증가세
  - 파나마 신정부의 공공 인프라 투자 기조 지속으로 건설업이 당분간 파나마의 경제성장을 5~6%대로 견인해나가는 주요 동력으로 기능할 전망

- \* 파나마 GDP 내 건설업 비중은 1990년대 2%대에 못 미쳤으나, 2010년 이후 8%로 신장하여 2018년 5월 건설업계 파업 직전까지 18%로 치솟으며 크게 증가함
- \* 파나마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월간경제활동지수(IMAE)는 공공교통·SOC(지하철, 교량, 도로개보수), 플랜트(발전소), 보건 분야 프로젝트 등 국책·민간 건설 프로젝트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5.2% 기록
- 대부분의 건설기자재 및 중장비를 수입에 의존하며 주요 수입품목은 철강 제품 및 건설용 중장비 등임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주요 건설업체와 네트워크가 공고한 유통업체 발굴 및 협력 필요
  - 메이저 건설사와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주요 유통업체와 협력을 통해 시장 동향 및 납품 가능성 사전 파악 필요
  - 경쟁국 제품 대비 차별화가 가능한 A/S 분야 등에 주력하여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관련 기술교육 연계 제공 등 전략적 진출 필요
- 중남미 지리적 거점 파나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건설장비 전시회 활용
  - 중남미 주요 바이어들이 대거 방문, 상담하는 중미 카리브 최대 전시회임을 고려하여 동 전시회 참가 또는 참관을 통한 유력 거래선 발굴 추진

### [ 파나마 건설장비 관련 전시회 ]

| 전시회명1 | 파나마 기계부품/건설장비전시회(Expomaquina) |
|-------|-------------------------------|
| 개최기간  | 2019년 2월                      |
| 개최장소  | ATLAPA Convention Center      |
| 주최기관  | ADIMA(기계수입협회)                 |
| 전시품목  | 건설장비, 광산기계, 농기계, 물류 등         |
| 전시회명2 | 파나마 건축박람회(CAPAC Expohabitat)  |
| 개최기간  | 2019년 9월                      |
| 개최장소  | ATLAPA Convention Center      |
| 주최기관  | CAPAC(파나마건설협회)                |
| 전시품목  | 건축기자재, 건설중장비, 부동산 및 금융상품 등    |

- 파나마 건설 분야 관련 주요 유망품목
  - (건설중장비) 굴삭기, 화물자동차, 유압브레이커, 건설중장비부품, 운반하역기기부품 등
  - (건축자재) 아연도강판, H형강, 철근, 산업용호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 (항만설비) 크레인 등

## 나. 전력기자재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파나마 주요 투자 분야 중 하나로 발전·송전·배전 각 분야 프로젝트 추진 활발
  - \* 송·배전의 경우 낙후된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수요가 높아 글로벌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는 상황
- 현지 유관기관 및 유력업체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시장 진출 도모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국가 주도 전력 분야 투자 확대로 전력기자재 수요 증가
  - 파나마의 발전 수요는 연평균 6%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6~2026년 기간 중 추가 발전 수요는 1,000~1,200MW로 매년 100~120MW의 발전소 건설(약 3억 달러) 필요
  - 제4송전선 등 신규 송전선 건설 및 기존 송전설비의 노후화로 송전 분야 설비 유지보수 수요가 높으며, 특히 변압기의 경우 노후화로 교체수요가 높은 상황
    - \* 파나마의 현재 발전설비능력은 2,600MW이며 최대 소비전력 수준은 1,612MW
    - \* 파나마의 송전분야 투자 수요는 10년마다 1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2016~2050년(35년간) 송전분야 투자 수요는 30억 달러 예상)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현지기업과 협력 강화를 통한 파나마 전력시장 진출 강화
  - 유력 발전사업자 및 장비 공급업체와 협력을 통한 파나마 전력시장 참여
  - 현지기업 제휴 및 에이전트 발굴을 통해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
    - \* 진출 유망품목 : 발전기, 변압기, 스위치기어, 철탑, 전선, ESS, smart grid 등

## 다. 자동차부품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국산 자동차 인지도 및 시장점유율(2위) 증가로 관련 자동차부품 수요도 동반 확대
- 현지 판촉지원, 적극적인 A/S 정책, 유연한 단가협상 등 차별화 전략 필요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자동차 생산이 전무하고 중산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소형 승용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구매 수요가 높음

- 특히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소형 승용차 및 택시에 대한 구매수요가 큰 시장임

○ 한국산 및 일본산 자동차가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

-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과 인지도 확대에 따라 연관 자동차부품 수요도 동반 상승
- 고품질 제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양분된 시장으로,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고루 갖춘 한국산 부품 전망은 긍정적

\* 2016~2017년 파나마의 신차 판매대수는 연도별 6만 대 이상이며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시장점유율은 2017년 기준 31.5%로 일본(55.2%)에 이어 2위를 유지하고 있음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현지 판촉지원, 적극적인 A/S 정책, 유연한 단가협상 등 현지 거래선이 요청하는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성화 전략 구사
  - 수출유망 자동차부품은 필터, 에어컨부품, 브레이크파트, 배터리, 엔진실, 스티어링파트, 타이어 등 소모·마모도가 높은 부품으로 이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중미 거점 파나마에서 개최되는 자동차부품 관련 전시회 참가를 통한 유력 거래선 발굴 추진

### 【 파나마 자동차부품 관련 전시회 】

| 전시회명1 | 중미 자동차부품 전시회(Latin Autoparts Plaza)              |
|-------|--------------------------------------------------|
| 개최기간  | 2019년 7~8월                                       |
| 개최장소  | ATLAPA Convention Center                         |
| 전시품목  | OEM, 교체용 자동차부품, A/S 부품 등                         |
| 전시회명2 | 중미 타이어 전시회(Latin American & Caribbean Tyre Expo) |
| 개최기간  | 2019년 6월                                         |
| 개최장소  | ATLAPA Convention Center                         |
| 전시품목  | 타이어, 중고타이어, 바퀴, 관련 부품 등                          |

## 라. 화장품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중미 한류붐에 따라 한국산 화장품 인지도 상승
- 온라인 마케팅을 결합하여 인지도 확대 및 주요 유통망 입점 추진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최근 중미 내 소득증가가 높은 국가 위주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식 확대 및 한류붐 확산에 따라 소비재와 연관된 마케팅 가능성 대폭 증가
  - \* 인근국 코스타리카의 경우 더페이스샵(LG생활건강)이 진출한 상황으로, 2011년 코스타리카 최대 쇼핑몰(Multiplaza) 진출 및 현재 5개 매장 운영 중
- 아직 온라인 판매 등 전자상거래 발달이 다소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특성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와 결합한 홍보 확산력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
  - 현재 중미 진출을 추진 중인 국내산 중저가 브랜드의 경우 현지 에이전트와 주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온라인 홍보를 통해 시장 확대를 도모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현지 정부기관 등록을 위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유효한 에이전트 발굴
  - 현지 특성상 정부기관 등록 관련 행정절차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이 다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에이전트 및 법무법인 협력을 통해 비효율성 극복 필요
- 온라인 마케팅, 한류 접목 판촉 행사 등 최근 현지 분위기를 반영한 최신형 마케팅 추진 필요
  - 트렌드에 민감한 제품 특성에 따라 현지 특성화 마케팅 전략 구사 필요
  - 현지 주요 유통망 제휴를 통한 인지도 확산 및 유력 유통체인 내 입점 추진

## 마. 의료기기 및 의약품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의료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와 소득수준 및 중산층 확대로 의료기기·의약품 수요 증가
- 현지 정부기관 등록 지원제도 마련을 통해 효과적인 시장 진출전략 수립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국가 주도의 의료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로 의료기기·의약품 수요가 견조하며, 은퇴인구, 고소득층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의료분야 개선에 대한 수요도 높음
  - 전반적인 파나마 공공보건 수준은 의료시설 부족 및 기존 시설 노후화로 다소 열악한 상황
  - 정부의 공공부문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암병원, 아동병원 증설 및 최신식 의료장비 입찰이 증가할 전망
  - \* 보건체계 개선, 의료장비 무상 지원, 의료기관 네트워크 현대화, 의약품 대량구매 등 추진

- 기존 미국·유럽 일변도 시장에서 최근 한국·일본 등 아시아산의 품질 우수성에 대한 인식 확대로 시장 진출 가능성은 긍정적 전망
  - 현지 미국 및 독일 등 메이저 브랜드 대비 한국산 경쟁력에 대한 인식과 브랜드 인지도가 확산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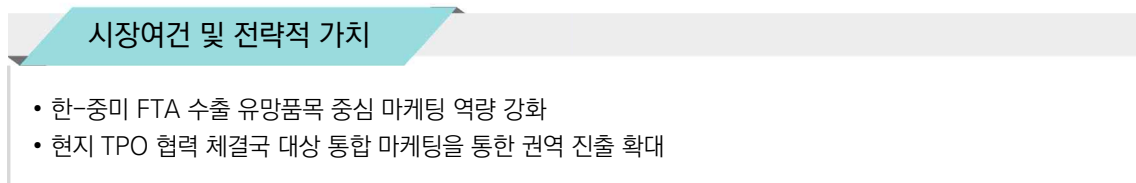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현지 등록절차에 대한 사전 준비 및 강화된 인증절차에 대한 대비 필요
  - 현지 업체와 파트너십 형성 등을 통한 현지 진출 소요기간 단축 및 각종 법적 절차 등 부담 경감
  - 정부기관 간 협업에 따라 현지에서 우대하는 의료기기·의약품 수입 관련 우호국가 리스트 진입을 통해 시장 진출을 위한 절차적인 비효율성 극복 필요
- 아직 중미 내에서 한국산의 품질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은 관계로 정부 기관 및 정부조달 주요 업체와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홍보 확대 필요
  - 중국산 등 타 아시아 국가 대비 우수한 품질경쟁력에 대한 적극 홍보 필요
  - 판촉서비스, 사후지원서비스, 제품 관련 교육 및 기술 전수 등 비교우위 경쟁전략을 수립하여 한국산 브랜드파워 강화

### 3. 한-파나마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가. 한-중미 FTA 활용 수출 유망품목 중심 시장 공략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8년 2월 한-중미 FTA 체결 이후 각 국가의 국회 비준과 발효를 앞둔 상황이며, FTA 발효 시 가격경쟁력 제고로 파나마 및 중미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 파나마 외 중미 4개국(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대상이며, 2018년 9월 기준 니카라과(9월), 엘살바도르(6월)만이 국회 비준을 완료한 상황

### [ 한-중미 FTA 추진 일지 ]

| 주요내용               | 일시                  | 장소          |
|--------------------|---------------------|-------------|
| 한-중미 FTA 공동 타당성 연구 | 2010. 10~2011. 4    | -           |
| 한-중미 FTA 협상 개시 선언  | 2015. 6. 18         | 휴스턴/미국      |
| 한-중미 FTA 예비 협의     | 2015. 7. 28~7. 30   | 산살바도르/엘살바도르 |
| 한-중미 FTA 1차 협상     | 2015. 9. 21~9. 25   | 서울/한국       |
| 한-중미 FTA 2차 협상     | 2015. 11. 23~11. 25 | 산살바도르/엘살바도르 |
| 한-중미 FTA 3차 협상     | 2016. 2. 22~2. 26   | 샌프란시스코/미국   |
| 한-중미 FTA 4차 협상     | 2016. 5. 23~5. 27   | 테구시갈파/온두라스  |
| 한-중미 FTA 5차 협상     | 2016. 8. 8~8. 12    | 서울/한국       |
| 한-중미 FTA 6차 협상     | 2016. 9. 26~9. 30   | 마나과/니카라과    |
| 한-중미 FTA 7차 협상     | 2016. 10. 24~10. 31 | 서울/한국       |
| 한-중미 FTA 협상 타결     | 2016. 11. 16        | 마나과/니카라과    |
| 한-중미 FTA 가서명       | 2017. 3. 10         | 산호세/코스타리카   |
| 한-중미 FTA 정식서명      | 2018. 2. 21         | 서울/한국       |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수출 유망품목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 (자동차부품) A/S 부품 수요 포착 및 납품기한 단축, 인근국의 소량 오더 흡수 등 주변국 연계 진출 파생전략 모색
  - (화장품·식음료·소비재) 중미 한류붐을 접목한 한국산 화장품·소비재 마케팅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SNS 홍보 및 유력 유통망 입점 추진
  - (의료기기·의약품) 현지 정부기관 등록 관련, 현지 파트너사 제휴 및 정부기관 우대국가 리스트 등록을 통해 까다로운 인증절차에 수반되는 비효율성 극복
- 한-중미 FTA 체결국가 통합 마케팅 사업 활용
  - (전시회) 파나마 종합박람회 등 소비재 중점 종합전 및 중남미 자동차부품 전시회, 건설장비 전시회 등 품목별 전문전 참여
  - (한-중미 FTA 포럼) 한-중미 FTA 활용방안 설명회 참여를 통한 현지 시장 진출전략 모색
    - \* 2019 중미 국가별 TPO 협력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중미관과 연계하여 개최 예정
  - (인근국가 상담대행 사업) 코스타리카·니카라과 등 한-중미 FTA 체결 미개척시장 대상 현지 상담 대행 사업 참가 및 유망 바이어 발굴

### 나. 파나마 물류인프라를 활용한 중남미 시장 진출 강화

##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콜론자유무역지대 물류 인프라 활용 스톡세일을 통한 중남미 연계 진출 강화
- 콜론자유무역지대 지방 상권 개척을 통한 역내 대형시장 진출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콜론자유무역지대는 중남미 최대 중계무역지대이자 보세구역으로 주요 국가의 중남미 시장 진출 전진기지 역할 수행
  - 최대 재수출 수요처인 베네수엘라의 정세 위기와 콜롬비아와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2016년까지 부진을 겪었던 콜론자유무역지대는 2017년을 기점으로 재수출 점진적 회복세
    - \* 콜론자유무역지대 2018년도 1/4분기 교역량은 전년 동기(47.7억 달러) 대비 9.9% 증가한 52.42억 달러를 기록(수입은 전년 동기(22.52억 달러) 대비 9.5% 증가한 24.67억 달러, 재수출은 전년 동기(25.18억 달러) 대비 10.2% 증가한 27.75억 달러를 기록함)
    - \* 동 기간 파나마의 콜론자유무역지대를 통한 對한국 수입은 3,237만 달러로, 한국은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열한 번째 수입대상국임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콜론자유무역지대 물류인프라 활용 스톡세일 추진
  - 중남미 주요 바이어들이 적기납품 및 소량다품종 제품 구매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콜론자유무역지대에 소재한 물류창고를 통해 중남미 주요국에 수출하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 수출 유망품목 : 의약품, 의료장비 및 의류, 신발류, 가전제품, 화장품, 식음료 등 소비재
- 콜론자유무역지대 지방상권 개척
  - 100억 달러 규모의 콜론자유무역지대 재수출시장을 공략하여 역내 대형시장(Major Market)으로 수출량을 확대하는 방안 추진
    - \* 콜론자유무역지대 입주 중계 바이어 및 지대 내 거점을 둔 중남미 대형 바이어 타깃

## 다. 파나마 건설 플랜트 시장 공략 강화

##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국내기업의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확대
- 유망 벤더 발굴을 통한 국내기업의 건설기자재 납품 채널 확대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파나마의 세계적 항만 및 물류 인프라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발판이 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국제물류 경쟁력 제고전략 기조가 유지될 전망
  - 콜론시 재개발 사업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의존도가 높던 인근 중미국에서 탈피하여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신규 성장동력 개발
    - \* 파나마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 2015~2016」에서 140개국 중 50위를 기록하였으며 항목별로 인프라교통(6위), 항만(7위) 부문이 상위를 기록함
- 현재 파나마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인프라 투자는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대규모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가 다수 발주 중인 상황으로, 2019년 신정부 출범에 따라 인프라 시장은 활성화될 전망
  - SOC, 전력, 공공보건 등 전략 분야에 집중한 공공 인프라 개선 및 신규 개발 수요 다대
    - \* (전력) 노후화된 송·배전·발전 시스템 유지보수 수요 존재,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구조 다변화에 따른 개발 수요 증가
    - \* (SOC) 지하철,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개발 수요 지속
    - \* (공공보건) 아동병원, 암병원 등 병원 신축 및 낙후된 병원 시스템 개보수 수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분야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파나마는 중남미 내 건설 프로젝트가 가장 활발히 추진되는 국가 중 하나로, 최근 한국기업의 진출 및 수주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이 가능한 분야로 대기업 수주 지원과 함께 연관 중소기업 협력분야 매칭 등 파급효과 확산 가능
- 전략적 컨소시엄 구성 지원체계 구축
  - 아직까지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등 동일 문화권 내 기업이 주요 입찰에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 메이저 진출업체들과 컨소시엄 구성 지원
- 한-중미 FTA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통한 주요 프로젝트 접근성 강화
  - 한-중미 FTA 내 합의된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따라 전통적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는 외국기업 대비 국내기업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가능한 발판 마련



## 수출유망 품목

|                |                 |                                                                                                                                                                                 |                   |        |
|----------------|-----------------|---------------------------------------------------------------------------------------------------------------------------------------------------------------------------------|-------------------|--------|
| 품목명 1          | HS Code         | 2202                                                                                                                                                                            | 수입관세율(%)          | 10%    |
| 음료             | 수입액('17/US\$백만) | 68.2                                                                                                                                                                            | 대한수입액('17/US\$백만) | 1.5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에 이어 한국산이 2위 수입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산 시장 점유율이 20%에 육박하는 등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li> <li>- 한-중미 FTA 발효 이후 관세 즉시철폐 예정 품목</li> </ul>                  |                   |        |
|                | 시장동향            | - 파나마 중산층 확대와 건강식품·기능성식품 등에 대한 관심 제고로 알로에 음료·과일음료 등 건강음료 중심으로 수요 확대 전망                                                                                                          |                   |        |
|                | 경쟁동향            | - 기존 미국산 및 타 중남미 국가산 제품 수입 이외 아시아산(한국, 태국, 대만) 등으로 수입국이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                                                                                                             |                   |        |
|                | 진출방안            | - 중국·대만산 저가 음료에 대응한 신제품 개발 및 주 소비자층인 청년층과 가성비에 집중한 마케팅 추진                                                                                                                       |                   |        |
| 품목명 2          | HS Code         | 8507.10                                                                                                                                                                         | 수입관세율(%)          | 15%    |
| 자동차부품<br>(축전지) | 수입액('17/US\$백만) | 17.5                                                                                                                                                                            | 대한수입액('17/US\$백만) | 9.3    |
|                | 선정사유            | - 한국산 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부품 시장 지속 성장 및 최근 3개년 한국산 배터리가 수입규모 1위를 차지                                                                                                                |                   |        |
|                | 시장동향            | - 최근 10년간 연평균 7.8%의 높은 성장 및 중산층의 내구성 소비재 구매력이 높은 시장으로 최근 연간 6만 대 이상 신차 판매, 파나마의 한국산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31%에 달해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요 높음                                                          |                   |        |
|                | 경쟁동향            | - 파나마의 자동차부품(타이어, 배터리 포함) 최대 수입대상국은 중국(21.6%), 중계무역지대인 콜론자유무역지대(11.0%)를 제외하면 미국(16.2%), 한국(11.0%), 일본(8.1%), 멕시코(6.3%) 등이 뒤를 이음(2017년 3/4분기)                                    |                   |        |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미-중남미, 태평양-대서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파나마의 이점을 살려 물류거점으로 활용</li> <li>- 제품의 납품기한 단축, 인근국의 소량 오더 흡수 등 주변국 연계 진출을 위한 다양한 파생전략도 모색</li> </ul> |                   |        |
| 품목명 3          | HS Code         | 3303,3304,3307.90                                                                                                                                                               | 수입관세율(%)          | 5~6.5% |
| 화장품            | 수입액('17/US\$백만) | 51.8                                                                                                                                                                            | 대한수입액('17/US\$백만) | 0.08   |
|                | 선정사유            | - 중미 내 1인당 GDP 기준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로 중산층 확대 및 생활수준 개선으로 미용·뷰티제품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 중                                                                                                   |                   |        |
|                | 시장동향            | - 전통적으로 미국·유럽에 의존하고 있는 시장이나 최근 확산 중인 K-뷰티붐에 힘입어 중미 전체적인 인지도 향상 및 시장 진출 가능                                                                                                       |                   |        |
|                | 경쟁동향            | - 소득격차로 인해 중저가 및 고가 양분화 현상이 뚜렷하며 공통적으로 미국 및 유럽산 수입의존도가 높음                                                                                                                       |                   |        |
|                | 진출방안            | - 개별 국가보다 중남미 통합시장 관점에서 접근하여, 중남미 국가 대형 유통체인에 입점된 사례 등 인근 국가 진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진출 방안 마련                                                                                            |                   |        |
| 품목명 4          | HS Code         | 7308                                                                                                                                                                            | 수입관세율(%)          | 3~15%  |
| 철강제품           | 수입액('17/US\$백만) | 131.8                                                                                                                                                                           | 대한수입액('17/US\$백만) | 17.6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미 FTA 발효 후 즉시철폐 내지 10년 이내 단계적 철폐 예정 중인 품목</li> <li>- 최근 한국산 수입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며, 2017년 9월 기준 중국에 이어 수입규모 2위를 차지함</li> </ul>          |                   |        |

|       |                 |                                                                      |                   |      |
|-------|-----------------|----------------------------------------------------------------------|-------------------|------|
|       | 시장동향            | - 파나마 내 공공인프라 투자 정책에 따른 각종 건설용으로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 지속                      |                   |      |
|       | 경쟁동향            | - 한국 외 주요 수입국은 중국, 콜롬비아, 인도, 코스타리카, 미국, 멕시코 등임                       |                   |      |
|       | 진출방안            | - 중국 제품과 가격경쟁이 치열한 만큼 가격경쟁력 제고 방안 및 맞춤형 제품 공급 방안 강구 필요               |                   |      |
| 품목명 5 | HS Code         | 8429,8430,8431                                                       | 수입관세율(%)          | 3%   |
| 건설중장비 | 수입액('17/US\$백만) | 122.3                                                                | 대한수입액('17/US\$백만) | 12.4 |
|       | 선정사유            | - 파나마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정책으로 건설시장 호황 지속 및 건설 중장비 수요 확대                    |                   |      |
|       | 시장동향            | - 유망 건설중장비로는 굴삭기, 화물자동차, 유압브레이커, 산업용호스, 건설중장비부품, 운반하역기기부품, 크레인 등이 있음 |                   |      |
|       | 경쟁동향            | -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 미국, 영국, 터키, 한국, 중국, 인도 등임                             |                   |      |
|       | 진출방안            | - 주요 건설업체들과 네트워크가 강한 유통업체 발굴                                         |                   |      |

\* 2017년 HS Code별 주재국 수입액은 3/4분기까지 통계 기준(HS Code별 최신 통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파나마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        |      |                                                                                                                               |
|--------|------|-------------------------------------------------------------------------------------------------------------------------------|
| 건설·플랜트 | 선정사유 | - 파나마 정부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투자 확대를 통한 물류 경쟁력 제고정책으로 건설경기 호조세 지속                                                                     |
|        | 시장동향 | - 제4교량, 지하철 3호선, 제4송전선, 전력 등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 추진                                                                                   |
|        | 경쟁동향 | - 현재까지 파나마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주로 스페인, 브라질 기업 주도<br>- 최근 기존 브라질계 메이저 건설사의 부패혐의 등에 따라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의 건설기업이 파나마 시장 진출 확대 추진 중        |
|        | 진출방안 | - 스페인, 이탈리아, 파나마 등 현지 진출기업과 협력을 통한 공동 진출방안이 효과적<br>- 파나마 발주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인맥 구축을 통한 입찰 정보 입수 및 입찰 대응 필요                        |
| 물류·유통  | 선정사유 | - 2016년 확장된 파나마운하 개통을 계기로 운하 및 콜론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중남미 시장 진출 필요성 증가                                                                  |
|        | 시장동향 | - 콜론자유무역지대 물류창고를 통한 중남미 인근 국가 스톡세일 추진<br>- 중국기업들은 중국-파나마 수교(2017. 6)를 계기로 콜론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중남미 수출확대 추진 중                          |
|        | 경쟁동향 | - 콜론자유무역지대 주요 수입대상국가 : 중국, 싱가포르, 미국, 홍콩, 멕시코, 베트남, 프랑스 등                                                                      |
|        | 진출방안 | - 중남미 주요 거래선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콜론자유무역지대 물류창고를 통한 중남미 주요 국가에 대한 스톡세일 추진                                                             |
| 의료     | 선정사유 | - 병원도시, 어린이병원, 암병원 등 다수의 국가단위 의료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로 의료장비 수요 확대<br>- 경제성장, 구매력 증가에 따른 의료기기 수요 확대                                     |
|        | 시장동향 | - 유망품목 : 방사선기기, 초음파기기, 치과용 엑스레이기기, 진단시약, 주사기 등<br>- MRI, CT 등 고가장비 : GE Healthcare, SIEMENS, Philips, Shimadzu 등 시장 주도        |
|        | 경쟁동향 | - 주요 수입국은 미국, 독일, 중국, 콜롬비아, 네덜란드, 한국 등임                                                                                       |
|        | 진출방안 | - 중국산과 가격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가격 대비 높은 품질로 시장 진입 가능성 높음<br>- 공공입찰 비중이 높은 만큼 낙찰 경험이 풍부하고 네트워크가 강한 전문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필요                    |
| 통신·콘텐츠 | 선정사유 | - 한-중미 FTA 추진에 따라 높은 수준으로 개방되는 서비스 부문의 주요 산업 분야(엔터테인먼트·연예 분야)<br>- 중미 지역에 확산 중인 한류 콘텐츠 관련 시청각 콘텐츠의 공동제작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규범 마련 예정 |
|        | 시장동향 | - 문화적으로 미국 및 히스패닉 계열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                                                                         |
|        | 경쟁동향 | - 전통적으로 미국 문화의 영향이 깊은 시장으로 미국·스페인·타 중남미 국가 계열 콘텐츠가 다수 구성                                                                      |
|        | 진출방안 | - 한류 활용 콘텐츠 협력 제작 및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분야                                                                                            |

### □ 2019년 파나마 종합박람회 한국관 운영

- 중미 최대 종합박람회 국가관 참가를 통해 중남미 유망 바이어 매칭 지원
  - 중남미 유력 바이어가 다수 집결하는 파나마 종합박람회 내 전시 및 바이어 상담 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우대지원 서비스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현장 성약 지원

### □ 한-중미 FTA 활용 서울푸드 중미관 운영 및 포럼·무역상담회 연계 개최

- 서울푸드 내 한-중미 FTA 체결국가 국가관 운영 및 FTA 활용방안 설명회·무역상담회 연계 지원
  - 중미 TPO 협력 국가관 개설을 통하여 중미 유망 식품업체 유치 및 국내기업과 무역상담회 지원
  - 한-중미 FTA 활용방안 설명회 연계 개최를 통해 FTA 활용 실무 등 정보 제공 확대

### □ 한-중미 FTA 활용 미개척 유망시장 수출상담회 지원

- 한-중미 FTA 체결국 중 미개척 유망시장 대상 유망 바이어 발굴 지원
  - 코스타리카·니카라과 등 진출 지원이 미진한 신규 시장 대상 상담대행을 통해 유망 바이어 발굴 지원
  - 주재공관 및 현지 TPO 기관 협력을 통해 한-중미 FTA 활용 협업기능 확대

### □ 현지 유력 유통체인 협업 화장품 및 소비재 쇼케이스 개최

- 한-중미 FTA 유망품목 화장품·소비재 대상 현지 유력 유통망 입점 추진
  - 현지 한류붐 및 한국산 프리미엄 제품(화장품·뷰티용품, 미용기기 및 기타 관련 소비재 등) 대상 수요 확산 기회 활용 유력 유통체인 협업 쇼케이스 개최
  - 현지 유력 소셜 인플루언서 활용 온라인 홍보 및 메이크업 시연행사 등 부대행사 병행을 통해 홍보 효과 극대화 및 현장 판매 추진



첨부 4

##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 □ 주요 정치 일정

| 주요 행사                               | 일시(잠정)                  | 비고 |
|-------------------------------------|-------------------------|----|
| 2019년 카톨릭 세계 청년 대회(World Youth Day) | 2019. 1. 22(화)~1. 27(일) | -  |
| 2019년 파나마 대통령 선거                    | 2019. 5. 5(일)           | -  |
| 2019년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                   | 2019. 7. 1(월)           | -  |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행사                      | 일시(잠정)   | 비고 |
|----------------------------|----------|----|
| 제12회 중미카리브(LAC)-중국 비즈니스 서밋 | 2019. 11 | -  |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행사                                     | 일시(잠정)                  | 비고    |
|-------------------------------------------|-------------------------|-------|
| 2019 파나마 기계박람회(Expomaquina)               | 2019. 2. 13(수)~2. 16(토) |       |
| 2019 파나마 종합박람회(Expocomer)                 | 2019. 3. 27(수)~3. 30(토) |       |
| 2019 중남미 타이어 전시회(LAC Tyre Expo)           | 2019. 6                 | 잠정 일정 |
| 2019 중남미 자동차부품 전시회(Latin Autoparts Plaza) | 2019. 7                 | 잠정 일정 |
| 2019 파나마 건축박람회(CAPAC)                     | 2019. 9                 | 잠정 일정 |
| 2019 파나마 물류박람회(Expologistica)             | 2019. 10                | 잠정 일정 |
| 2019 파나마 의료박람회(Expomedica)                | 2019. 10                | 잠정 일정 |

### 담당자

파나마 무역관 김현진  
Tel 507-264-8105

직책 과장  
Email hjinkim@kotra.or.kr

# 2019 국별 진출전략

## 파나마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